

리자마님 눈썹은 오데로 갔나

김선미 외 지음

동학사/A5신/310면/7000원

어린이들의 관심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음악·미술·문학·공연예술 등 예술 분야와 컴퓨터·첨단 과학기술·스포츠 분야에서 160가지 용어를 선별, 그 개념을 풀어 쓴 상식책.

표제 '리자마님 눈썹은...'는 미술편 가운데 <모나리자>를 설명한 장. '모나(모나)'는 부인을 지칭하는 높임말이고, '리자'는 그림 속 여인의 이름.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가 4년에 걸쳐 완성한 <모나리자>는 눈썹이 없다. 이마가 넓은 사람이 미인 대접을 받았던 당시의 미적 감각으로 인해 리자부인도 눈썹을 뽕뽕 빼어버렸던 것이 그 이유다.

흥미로운 에피소드와 더불어 재미있는 삽화를 곁들였다. 깔끔한 편집도 이 책을 돋보이게 하는 데 한몫한다. (703-6973)

재미가 술술 글이 술술

이동태 글·김복태 그림

중앙일보사/B5/216면/6500원

글짓기를 두려워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전반적인 글짓기 학습내용을 만화로 엮은 책.

국교 교과과정에 나오는 동시·시조·일기·편지글·생활문·독서감상문·설명문·논설문·기행문·견학기록문·관찰기록문·감상문·극본·이야기 쓰기 등 14종류의 글짓기에 관한 내용이 만화로 술술 펼쳐진다. 각 종류별 글짓기의 특징을 만화로 보여줘 분위기를 익히게 한 후 그 내용에 부합되는 예문을 제시하고 있어 글 쓰는 원리와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이 책은 어린이가 보낸 글을 저자가 직접 평가·지도해 그 내용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국내 최초 A/S형 글짓기 학습서"를 지향하고 있다. (751-9460)

하하호호 과학이야기 (전3권)

김수영 엮음

가리온/A5신/각 200면 내외/각 4000원

유명 과학자들의 별난 생애 및 현대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불가사의한 세계를 기술한 신비한 과학이야기 모음.

제1·2권 <괴짜 과학자의 별난 이야기>편과 <과학의 정상에 오른 거인들>편은 과학자들의 유난스러웠던 과학 인생 이야기. 파리드 베르그는 인체 해부를 위해 시체를 훔쳤고, 코플로프는 감옥에서 최초로 인공위성을 설계했다. 한편 일식의 비밀을 파헤친 탈레스와 포로수용소에서 수학공식을 풀었다는 몽슬레르, 마귀벌의 신비를 알아낸 구드리크 등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마지막 제3권 <뜻밖의 과학이야기>는 과학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수수께끼의 세계이다. 뱃사람을 잡아먹는 괴전파의 정체, 코끼리만의 집단 묘지, 네발 동물의 선조는 살아 있을까 등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이야기. (846-6952)

나비가 된 작은 숙녀에게

이혜원 글·위승희 그림

현암사/B6신/126면/3800원

'생리'는 뭘까요? 요즘은 국민학교 5학년 쯤 되면 첫 생리를 시작하는 소녀들이 많다. 이 책은 생리를 시작하거나 혹은 준비하는 시기에 있는 소녀들에게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품을 일일이 챙겨주고 있다.

내용 중에 등장하는 '언니'는 여성의 신체적인 특징을 언급하면서 소녀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성에 관한 지침을 이야기식으로 술술 풀어간다. "첫생리를 시작한 소녀들은 초조함과 부끄러움에 빠져서 성격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마치 친언니처럼 여러가지를 조언해준다.

생리대 고르는 법, 생리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대체 여자과 남자는 무엇이 다른지, 브래지어 고르는 법 등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차마 물어보기 곤란한 것들을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365-5056)



말국이 척척 한문숙어 1

김지수 글·그림

국민서관/A5/184면/4500원

《스포츠서울》에 개그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저자가 한자숙어를 만화로 엮은 한문 학습서. 제1권은 동식물에 관련된 숙어만을 발췌, 수록했다.

주인공 '말국이'는 가끔 엉뚱한 일을 저지르긴 하나 착하고 순진한 어린이. 말국이뿐만 아니라 말국이 가족 모두가 엉뚱하기 이를 데 없다. 항상 코믹하고 흥미진진한 사건이 말국이네 가족에게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상의 에피소드들을 통해 한문숙어의 뜻과 교훈을 전달한다.

한번은 말국이가 돈이 없다는 할아버지에게 자꾸 용돈을 달라고 조르자 할아버지는 "허 '강목수생(剛木水生)' 격이로다"하고 대꾸한다. 이는 마른 나무에서 물이 나오도록 한다는 뜻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억지부리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7107-777)

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

재미마주 기획/이호백 글·그림

갈벗/B5변형/18면/6500원

전래동화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을 각색하고 그린 책.

배짱 좋은 한 청년이 쌀 한톨을 들고 세상구경을 떠난다. 쌀 한톨을 쥐가 먹어 버리자 청년은 쌀 대신 쥐를 잡아들고, 그 쥐를 고양이가 먹자 쥐 대신 고양이를 받는다. 그렇게 해서 고양이가 강아지로, 그것이 송아지로 계속 바뀐다. 마지막 단계에서 송아지가 처녀로 바뀌자 청년은 그 처녀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

이 책은 편집이 아주 독특하다. 그림이 온통 검은색 실루엣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림자의 윤곽만 보고도 주인공의 표정과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 또 '구멍뚫린 이야기'라는 기획에 어울리게 쌀 한톨 모양과 등장하는 갖가지 동물 및 처녀의 모습을 오려내어 페이지를 넘기는 재미를 주고 있다. (3141-0239)

바둑이와 컴퓨터

노경실 글·우수정 그림

대원사(주)/A5신/224면/4000원

신춘문예로 데뷔, 《상계동 아이들》《지하철을 탄 천사》《노란 병어리 장갑》 등 동화·소설을 열정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작가가 어린이들의 언어와 감각, 생활 등을 리얼하게 그린 23편의 창작동화집.

표제작 <바둑이와 컴퓨터>는 컴퓨터를 무척이나 갖고 싶어하는 4학년짜리 호돌이의 이야기. 호돌이는 새해 계획을 작성하면서 "새해에는 컴퓨터를 꼭 사달라고 해서 컴퓨터 박사가 될 것!"이라고 써 붙였으나 부모님은 본체도 하지 않아 짜증이 난다. 한편은 밥을 먹으면서 컴퓨터 얘기가 나오길래 막무가내로 사달라고 졸랐으나 부모님은 계속 형편상 어렵다고 말해 울먹이면서 뛰쳐 나간다. 이때 바둑이가 따라 나오고, 호돌이는 바둑이에게서 위로를 받으면서 자신이 부모님한테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음을 깨닫는다. (757-6717)

톰 소녀의 모험 외 2권

마크 트웨인 지음/조애리 외 옮김

미래사/A5신/각 400면 내외/각 6500원 내외

19세기 미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널리 알려진 마크 트웨인의 대표작 가운데 1차분이 완역 출간됐다.

《톰 소녀의 모험》(1876)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1884)은 작가의 소년기 체험에 기댄 작품. 《톰 소녀의 모험》은 미시시피 강변의 마을에서 자란 소년 톰과 그를 둘러싼 일단의 소년·소녀를 묘사함으로써 생기발랄한 미국혼을 약동시키고 있으며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주인공 허클베리 핀의 '영원한 소년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노예제도 하에 있던 서남부 지방의 사회상을 짙게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 《아더왕과 양키》(1889)는 19세기 미국사회의 인간상을 8세기경 영국의 아더 왕조시대와 오버랩시켜 봉건적 잔재와 사회구조의 모순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작품. (514-1221)

나는 꼬마 요리사

장애현 지음/윤희란 그림
동쪽나라/A5신/160면/4000원

“요리는 생활의 예술”이라 생각하는 저자가 어린이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한국요리, 서양요리를 친근한 어투로 소개한 실용서. 요리의 특성을 살린 그림도 풍성하다.

요리의 주제는 ‘재미로 하는 요리’ (피자토스트·떡볶이·샌드크래커) ‘혼자 있을 때 하는 요리’ (수제비·카레국수·맛살오뎅볶음) ‘엄마가 편찮으실 때 하는 요리’ (미역국·메추리알조림·흰죽) 등 10가지로 구분했다. 한가지 요리 설명이 끝날 때마다 음식상식 및 음식의 유래 등 다양한 이야기까지도 전해준다.

한편 칼, 도마, 가스레인지, 행주, 압력솥, 프라이팬 등을 다룰 때의 안전수칙과 손질방법도 배울 수 있다. (263-1941)

아빠, 법이 뭐예요?

우리누리 지음/권사우 그림
창작과비평사/A5신/240면/4000원

“법이 대체 뭐지?” “법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법의 이모저모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설명한 책.

하늘나라 천사 금비는 하도 말썽을 부려 지구로 추방된다. 지구에서 법을 배우오라는 엄명이 내려진 것. 금비는 곧 지구 소년 윈이를 만나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을 부모님과 주위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알게 된다.

금비는 가장 먼저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기본적인 의문을 풀고 나서 계속해서 사회규범과 법의 관계, 법의 역사 등을 배운 다음,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헌법·가족법·형법·근로기준법·노동법·소비자보호법·환경법 등의 성격을 알아낸다. (718-0541)

박 바가지 뽀 바가지

문제술 지음/이규경 그림
한솔미디어/A5신/184면/4000원

시골 정취가 물씬 배어있는 소재들을 동심과 연결시킨 단편동화집. 제1부 누리, 사랑, 제2부 이웃 사랑, 제3부 다 함께 생각하는 동화라는 주제 속에 모두 18편이 수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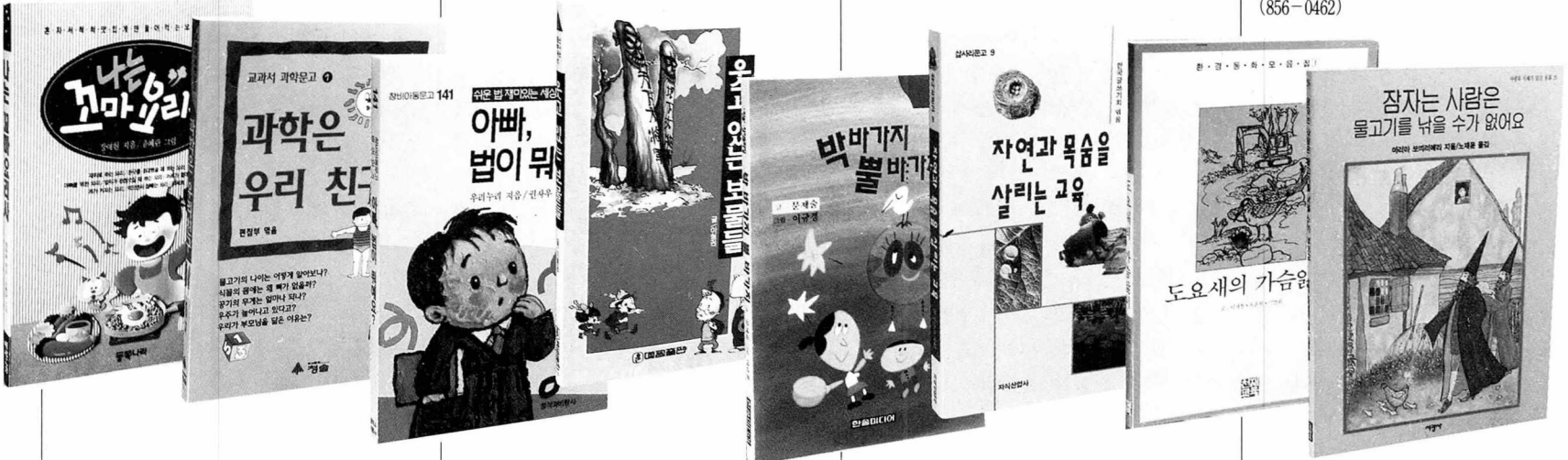
표제작 <박 바가지 뽀 바가지>는 시장 모퉁이 그릇가게에 있는 플라스틱 바가지(뽀 바가지)와 할머니가 손수 만들어 장에 내온 박으로 만든 박 바가지의 이야기. 손님들이 많이 찾는 뽀 바가지는 박 바가지가 못생겼다고 계속 깔본다. 그러나 박 바가지가 박 공예가에 의해 비싼 값으로 팔려가 아름다운 문양을 새긴 어엿한 공예품으로 변한 것을 보고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 이 동화에는 밤에만 피어나는 박꽃이 지고 난 후 조롱조롱 열리는 박덩이의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게 펼쳐지고 있다. (755-4997)

도요새의 가슴앓이

이재현 외 지음
천재교육/A5신/192면/4000원

동화작가 이재현(<도요새의 가슴앓이>의 5편), 오윤현(<일렁이네 이사가던 날>의 5편), 이영희(<앞 못보는 양의 눈물>의 5편) 세명이 참여한 환경동화. 환경오염으로 인해 날이 멸종위기에 처하는 생물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표제작 <도요새의 가슴앓이>는 철새 도요새들의 여행을 다룬 작품. 북극에 살던 도요새들은 겨울이 오기전에 우두머리 ‘투투’를 따라 수천마리가 떼를 지어 강화도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날아가는 이 여행에는 많은 위험이 따랐다. 특히 낮에는 사냥꾼들이 쫓아들이기 때문에 몇마리 새들은 힘없이 떨어져내려 동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힘든 여정을 끝내고 강화도에 정착하지만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사람이 돼버렸다. (856-0462)



과학은 우리 친구

편집부 엮음
청솔/A5신/208면/4000원

“왜 비가 오는 걸까?” “왜 땅이 나지?” “메아리는 왜 생기나?” “왜?”라는 관심과 의문이 마침내 과학의 기초가 된다는 취지에서 과학 전반에 대해 쉽게 풀이한 책. 국민학교 고학년용이다.

우주의 신비, 새, 곤충, 유전자, 환경, 인종, 컴퓨터, 원자력 등이 주된 내용이며 각 장이 끝날 때마다 과학사에 나타난 재미있는 ‘발견’ 이야기를 실었다. 동물편의 ‘동물의 눈’을 설명한 장을 보면, 개는 색맹이기 때문에 냄새와 생김새, 크기에 의해서만 사물을 구별한다. 또한 닭은 무지개의 일곱 색깔도 구별한다고, 발견 이야기 중에는 ‘통조림’의 발견 과정도 나온다. 19세기 초, 나폴레옹이 썩지 않고 맛도 변하지 않으면서 운반도 편리한 식품저장법을 현상공모한 결과 아벨이 통조림의 원리를 발견한 것. (3141-1179)

웃고 있는 보물들 (1·2)

이형권 지음/백정현 그림
대교출판/A5신/각 224면/각 5000원

<신나는 문화유산 여행> 시리즈. 제1권은 가볼 만한 문화유적지를 탐방한 책.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 장승, 양동 민속 마을, 땅끝 마을과 달마산 미황사,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하룻밤 사이에 천개의 탐과 불상을 세우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데 결국 마지막 불상을 일으키지 못해 실패하고 말았다는 운주사 이야기, 세계인들이 찬탄하는 석굴암 부처님의 미소에는 어떤 비밀이 간직돼 있을까 등 각 유적지의 역사적 배경도 전해준다.

제2권은 각지에 산재해 있는 열한가지 문화유적들을 소개한 책. 고창의 선운사, 안면도의 붉은 소나무, 한탄강의 고석정, 대왕암과 감은사 터 등에 얽힌 이야기가 실려 있어 한번쯤 여행을 떠날 마음을 갖게 한다. (561-3750)

자연과 목숨을 살리는 교육

한국글쓰기회 엮음
지식산업사/A5신/308면/6000원

한국글쓰기회에서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교육’이란 주제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자연과 친해지게끔 노력한 결과에 관해서 어린이와 교사가 쓴 글을 소개하고 있다.

한 교사는 아이들이 채소 이름을 잘 모르는 것을 감안해 교실마다 푸른 채소를 심었는데 아이들이 “이 토마토는 언제 익느냐”고 보채면서 유난스럽게 일을 도와줬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선생님이 맨발로 운동장에 나선 것을 본 한 어린이가 쓴 글은 아주 솔직하다.

“선생님께서 맨발로 나오셨다. 선생님은 흙이 몸에 좋다고 하셨다. 나는 양말을 안 벗고 있으니 기본이 이상해서 벗었다. 선생님께서 운동장을 한 바퀴 돌라고 하셨다. 도는데 간지럽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였다. 나는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734-1978)

잠자는 사람은 물고기를 낚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 보띠리에리 지음/노재운 옮김
서광사/A5신/108면/4000원

<사랑과 지혜가 담긴 동화> 시리즈 제25권. 격언으로 이루어진 11편의 동화.

<만족해하는 사람은 행복하지요>편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구두수선공 부부의 이야기. 어느날 마법사가 나타나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면 다 주겠다고 말한다. 이 부부는 좋은 집이며 아름다운 옷, 보석, 맛있는 음식 등을 주문하다가 마음에 차지 않아 계속 다른 것을 주문한다. 물건들이 들 곳도 마땅치 않을 만큼 불어나지만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다. 주문한 선물을 한가지도 제대로 입어보거나 즐겨보지 못하고 만 것. 마침내 그들은 “만족해 하는 ‘희망’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즐겁게 구두 수선일을 하게 된다.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격언 못지않게 아름다운 그림들도 눈길을 끈다. (924-6161)